

Vol.10 2024 여름 고창!
문화를 읽는 창



특집/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의 부흥을 견인하는 위대한 축,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에서 '중심'을 외치다
한국사진작가협회 박현규 고창지부장 고창사랑 듬뿍 담긴 사진으로, 고창을 알리다
카페 연다원 이승연 대표 싱그러운 녹차밭과 맛있는 디저트의 향긋한 밀당
유병희 자연환경해설사 숲이, 습지가, 바다가, 새가 나의 벗
전외숙·유종기 부부 머무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힐링하는, 휴하우스
이명훈·남기성 부부 음악과 춤으로, 고창의 옛것을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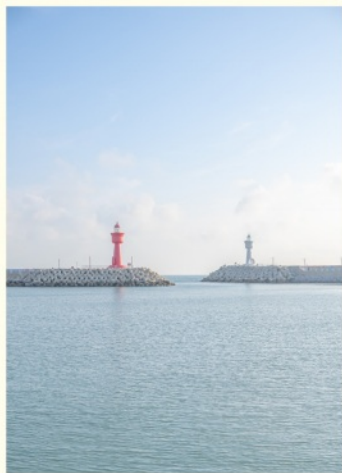
소식지 <고창! 문화를 읽는 창>은

우리 지역의 문화를 함께 그려나가는

새로운 창(窓)을 말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이슈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 쓰는 고창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고창! 문화를 읽는 창> 제10호 표지 이야기

고창의 여름밤을 밝히는 구시포항 등대예요. 18.9미터 높이에 한편은 붉은 와인잔을, 한편은 흰색 와인잔을 형상화한 등대입니다. 2015년 6월 첫 불을 밝혔고 2023년 4월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한 이달의 등대이기도 해요. 고창의 모든 계절을, 그 계절의 밤을 지키는 작은 수호신이에요. 산들바다, 갯벌 두루두루 아름다운 고창의 계절로 오세요.

<고창! 문화를 읽는 창> Vol.10 2024 여름

발행일 2024년 7월 26일

펴낸곳 (재)고창문화관광재단

펴낸이 심덕섭

편집디자인 책마을해리

등록일 2020년 07월 21일

등록번호 제고창-바-00100호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태봉로 361

전화 063)561-1110

팩스 063)561-5556

홈페이지 www.gctf.or.kr

ISSN 2733-9971

<고창! 문화를 읽는 창>은 (재)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입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가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 필자의 글은 고창문화관광재단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고창! 문화를 읽는 창

Vol.10 2024 여름

여는 글 002

고창의 창을 마주한 모두가 “로컬 크리에이터”로 살고 있다는 어떤 깨달음

특집/ 로컬 크리에이터 004

지역의 부흥을 건언하는 위대한 축,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에서 ‘중심’을 외치다 004

한국사진작가협회 박현규 고창지부장 고창사랑 듬뿍 담긴 사진으로, 고창을 알리다 008

카페 연다원 이승연 대표 싱그러운 녹차밭과 맛있는 디저트의 향그러운 밀당 011

유병희 자연환경해설사 숲이, 습지가, 바다가, 새가 나의 벗 014

전외숙·유종기 부부 머무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힐링하는, 휴하우스 017

이명훈·남기성 부부 음악과 춤으로, 고창의 옛것을 잇다 020

고창, 여기에 스며요 024

고창농촌관광연구회 “놀러 오고 싶은 곳에서 살고 싶은 곳으로” 024

고창지역관광협의회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것이 좋은 관광 027

고창갯벌 맨발 걷기 어싱(Earthing), 땅으로부터의 치유 029

고창갯벌 놀이 낚선 바다생물 친구들을 눈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느껴요 033

고창을 찾아요 036

고창여행도서관 북크닉, 책과 함께 떠나는 고창 여행 036

고창 꽃정원 치유문화축제 보고 느끼고 즐기는 다채로운 꽃의 향연 속 치유와 힐링 040

고창별밤 그린캠프 청정자연 속 여유와 휴식, 캠핑도 고창! 044

재단소식 047

공연소식, 고창 새 책 048





고창의 창을 마주한 모두가 “로컬 크리에이터”로 살고 있다는 어떤 깨달음

고창을 바라보는 가장 신선한 창,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작년 모퉁이에서 삼복의 더위까지 찬찬히 살펴본 고창 진면목을 여기 부러놓아요. 고창이라는, 중심을 올리는 새로운 중심의 자리에서 오래도록 향기 머금으며 스스로 향기를 피워놓는 사람들, 모임들, 차근차근한 움직임에 담았어요. 고창이라는 오래 묵은 장맛처럼 향긋한 ‘어떤 것’의 정체를 이 사람, 모임, 움직임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더불어 이 몇 가지 독특한 창을 통해 세계 어디서든 고창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고창의 하늘과 땅, 바다와 강줄기에 닿아 살았고, 그렇게 터득한 고창이 담은 찬란한 맥락을, 말로 글로 이미지로 움직임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번 창 의 핵심은, 로컬 크리에이터예요. 지방, 지역으로 담지 못하는 독특한 정신을, 활동을 담는 새로운 틀로, 로컬이라는 어휘를 잡았어요. 우리 지역에 활기를 담보하는 창의로운 사람들, 여기에는 꼭 “젊고 산뜻한”만 담은 것은 아니에요. 대를 이어 오래도록 고창에 터를 잡고 고창사람의 눈으로 고창을 담아 표현하는 이로부터 이제 몇 년 젊기는 젊아도 애정 깊이는 한정없는 새내기 로컬 크리에이터까지, 이번 창은, 수많은 결로 고창을 표현하고 고창사람들의 진한 살림살이를 알리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여름 갯벌에 나가볼 일이에요. 마침 유네스코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지위를 재확인해주었어요. 그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 고창갯벌을 걷고 느끼고 배우고 나누는 일도 삶터로서 가치와 더불어 꼬옥꼬옥 살피고 놀러 담아보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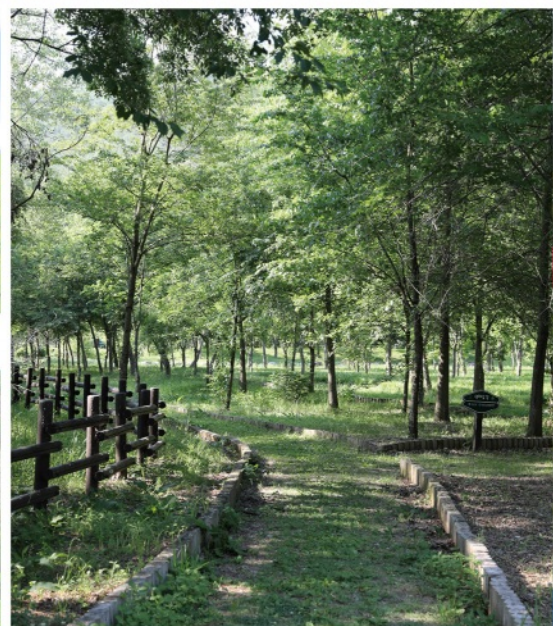
고창의 창을 통해 중계하는 ‘고창의 어떤 것’은 이 창을 통해 고창을 읽으려는 수많은 독자를 통해 더 빛날 거예요. 고창의 창을 마주한 모두가 스스로 “로컬 크리에이터”로 살고 있다는 깨달음도 빛나요. 더위와 가을 빛나는 고창의 계절을 잘 살아내시고 겨울 새로운 <고창의 창>으로 또 만나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로컬 크리에이터의 활동이 얼마만큼 지역에 녹아드느냐의 문제이다.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 섞이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가 말하고 바라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온전히 지역에 녹아들고, 지역을 이해하며 각자의 시선이 담겼을 때 비로소 로컬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이 빛을 발한다.

세계가 인정한 고창 보물 7

01.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
02.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03.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
04. 인류무형문화유산, 농악
05.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 전역
06. 세계지질공원, 고창병바위 등
07. 세계기록유산, 무장포고문 등



비로컬(BELOCAL), 로컬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든다

김혁주 대표가 이끄는 비로컬은 2018년에 설립된 로컬 커넥트 스타트업으로, 로컬 비즈니스 생태계에 집중하고 있다. 자기주도적인 삶, 자신의 지향에 부합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비즈니스의 형태를 로컬 안에서 찾고자 활동하던 중 코로나19가 터지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매장 형태의 사업을 이어오던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어려움을 목격하고는, 본래 동네 기반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기획 사업에서 벗어나 로컬 관련 행사 운영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미디어 회사로 사업을 전환했다. 이후 꾸준히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인터뷰하고, 로컬 정책과 행사를 소개하며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로컬로(Local), 우리가 걷는 곳곳이 여행이고 낭만

이원빈 대표는 로컬로 설립 후 '청년들이 어디서든 꿈꾸고 실현하는 세상을 만든다'라는 미션 아래 여행·교육 분야 사업을 진행한다. 로컬로가 진행하는 사업은 여행프로그램 '경주네컷'과 창업 교육 프로그램 '프로젝트 노마드' 두 가지다. 특히 경주네컷은 1박 2일간 필름카메라를 들고 경주 원도심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경주를 찾는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낭만, 대화, 필름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짧은 여행 안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고 참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시금 나를 알아가고 필름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새기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로컬 크리에이터 in 고창

고창은 전국 어느 곳보다 많은 로컬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데다, 많은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를 자랑하는 고인돌(문화유산), 자연의 보고인 고창갯벌(자연유산), 흥과 멋이 가득한 판소리와 농악(무형문화유산),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운곡람사르습지를 포함한 고창군 전지역(생물권보전지역), 자연유산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지는 병바위를 포함한 13개 지역(세계지질공원)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세계기록유산)까지 유네스코가 인정한 고창의 보물이 일곱 가지나 된다. 이런 다양한 보물들로 고창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보존하며 새로운 콘텐츠로 재탄생시키고 있는 고창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소개한다.

고창사랑 듬뿍 담긴 사진으로, 고창을 알리다

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지부 박현규 지부장



지난해 7월 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지부가 창립했다. 박현규 초대 지부장을 필두로 정회원과 준회원 자격을 가진 열두 명으로 시작한 작은 단체다. 지난 2022년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타 지부 소속 고창 출신 사진작가를 영입하거나 신규회원 자격 취득 등을 통해 까다로운 지부 설립 요건을 충족시켰다. 고창의 사진예술 활성화와 예향고창의 자존감 회복이라는 목적 아래 박현규 지부장과 회원 작가들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 예비회원까지 모두 열다섯 명의 회원을 이끌고 있는 박현규 지부장을 만나 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지부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오래전부터 바라왔던 지부 설립

박현규 지부장은 어릴 때부터 사진과의 인연이 우연하게도 계속 이어졌다고 말한다. 사진을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꾸준히 찍어오며, 교육자격증도 따고 심사위원 활동도 하면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어 지금까지 왔다. 본격적으로 지부 설립에 박차를 가한 건 얼마 안 된 일이지만 박현규 지부장은 2002년도부터 고창지부를 만들고자 생각했다. 워낙 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많지 않아 준비



과정부터 애를 먹었지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라왔던 일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돌파구를 찾았다. 예비 회원들이 정회원 요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대외활동과 교육이수 등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렇게 꾸려진 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지부는 창립 이후 촬영대회, 사진 공모전, 전라북도 사진 연수회 등 여러 행사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며 단체 활성화



명사십리 ©박현규



동호해변 ©박현규



선운사 꽃무릇 ©박현규



화에 몰두하고 있다.

“올해는 마을 어르신들의 영정 사진을 찍는 재능 기부 활동을 합니다. 기존에 딱딱하고 칙칙한 느낌의 사진이 아니라 야외에서 멋진 모습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기획했어요.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과 함께합니다. 우선은 고창읍부터 진행할 예정이에요.”

사진을 통해 지역 홍보와 아카이빙

박 지부장에게 있어 사진은 작품이기도 하지만, 자료의 의미가 크다. 여러 사진을 찍지만, 특히 고창의 다양한 풍경을 담는다. 그의 SNS에는 꾸준히 찍어 올린 고창의 사계절로 가득하다. 현재는 고창 곳곳을 다니며 은하수 사진을 찍고 있다. 지부 활동 또한 고창 알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회원들이 행사를 위해 찍은 고창 사진을 SNS에 올리면, 그들과 연결된 불특정 다수가 그 사진을 보고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고창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지부장으로서도 고창을 아카이빙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고창을 알리는 건 지자체에서만 아니라 순수 일반인들도 함께 홍보해야 효과가 있잖아요. 고창은 찍을 곳이 정말 많아요. 아름다운 풍경을 계속해서 SNS에 올리다 보면 사람들도 고창의 풍경에 매력을 느껴,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 생각해요. 모두 사진이라는 개인의 취미생활이 매개가 되어 만났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찍은 사진으로 고창을 홍보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싱그러운 녹차밭과 맛있는 디저트의 향그러운 밀당

쌈싸름 유기농 녹차 품은, 카페 연다원 이승연 대표



시골 마을 안쪽에 넓게 자리한 카페 연다원은 직접 재배한 유기농 녹차를 베이스로 만든 음료를 판매한다. 이곳이 많은 이에게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는 카페 주변으로 펼쳐진 녹차밭에 있다. 재배지 바로 앞에서 운영하는 카페는 음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기도 하지만, 숲의 짙은 녹음과 싱그러운 차밭의 조화가 눈과 마음을 맑게 해주는 듯한 느낌을 준다. 아버지에서 아들에게로 이어진 다원은 연다원이라는 이름의 카페까지 더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공간이 되었다.

치유가 녹아든 '정원 같은 다원'

우리나라 토종 품종인 고창 선운사 녹차 씨앗을 가져다 파종을 하면서 연다원이 시작됐다. 이철우 씨는 3만여 평 녹차밭을 일구며 치유의 명상길을 만들고 찻집을 열고자 계획했다. '정원 같은 다원'을

꿈꾸며 차밭을 일궈냈다고 한다. 아버지의 사업은 자연스럽게 아들에게로 이어졌다. 이철우 대표가 녹차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돕던 아들 이승연 대표는 가업을 잇기 위해 농수산대학교에 진학했고, 꾸준히 차 공부를 해왔다. 졸업 후에는 녹차밭 앞에 카페 연다원을 열었다. 지금의 연다원은 아버지 이철우 대표의 오랜 계획이 아들과 함께해 비로소 완성된 다원이다.

카페를 중심으로 뒤편에는 저수지가 있고, 앞으로는 차밭이 양 갈래로 갈라져 펼쳐진다. 차밭 주변으로는 편백나무가 심어진 녹차밭둘레





길이 있고, 한쪽에는 핑크물리와 녹차밭이 어우러진 포토존이 마련되어 가을에는 또 다른 볼거리가 펼쳐진다. 2층 규모의 카페 건물은 통창으로 되어 있어 카페 안에서 차밭 풍경이 고스란히 보인다. 차밭과 저수지 앞에도 야외 테이블을 배치해 두어 어디에서든 다원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둘레길을 걸으며 명상을, 카페에 앉아 사색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연다원의 대표 메뉴는 유기농 말차라떼와 복분자라떼다. 직접 재배해 찻잎으로 만든 말차라떼는 단연 매출 1위이고, 복분자라떼는 생과와 원액을 섞어 만들어 알갱이 씹히는 재미와 상큼한 맛에 인기 많은 음료이다. 그 외에 유기농 새싹보리라떼, 유기농 호지차라떼 등 연다원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뉴도 있고, 말차, 밀싹분말, 새싹보리 분말 등 연다원

자체 가공식품도 카페 한편에서 판매해 선물용으로 구매하기에도 좋다. 음료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케이크와 베이커리류도 판매한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가업으로 이어가는

어려웠던 시기에도 꺾이지 버텨 사업을 이어온 이철우 대표가 마련한 토대 위에 다음 세대인 이승연 대표가 새로운 오늘을 쌓아나간다. 연다원은 카페 사업 외에 티 스테이 공간을 조성해 숙박이 가능한 스테이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여기까지가 연다원이 그리는 최종 목적의 첫 발판이다. 이승연 대표는 젊은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차와 공간을 운영해 오고 싶은 아름다운 다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숲이, 습지가, 바다가, 새가 나의 벗

《고창의 새》 펴낸 유병희 자연환경해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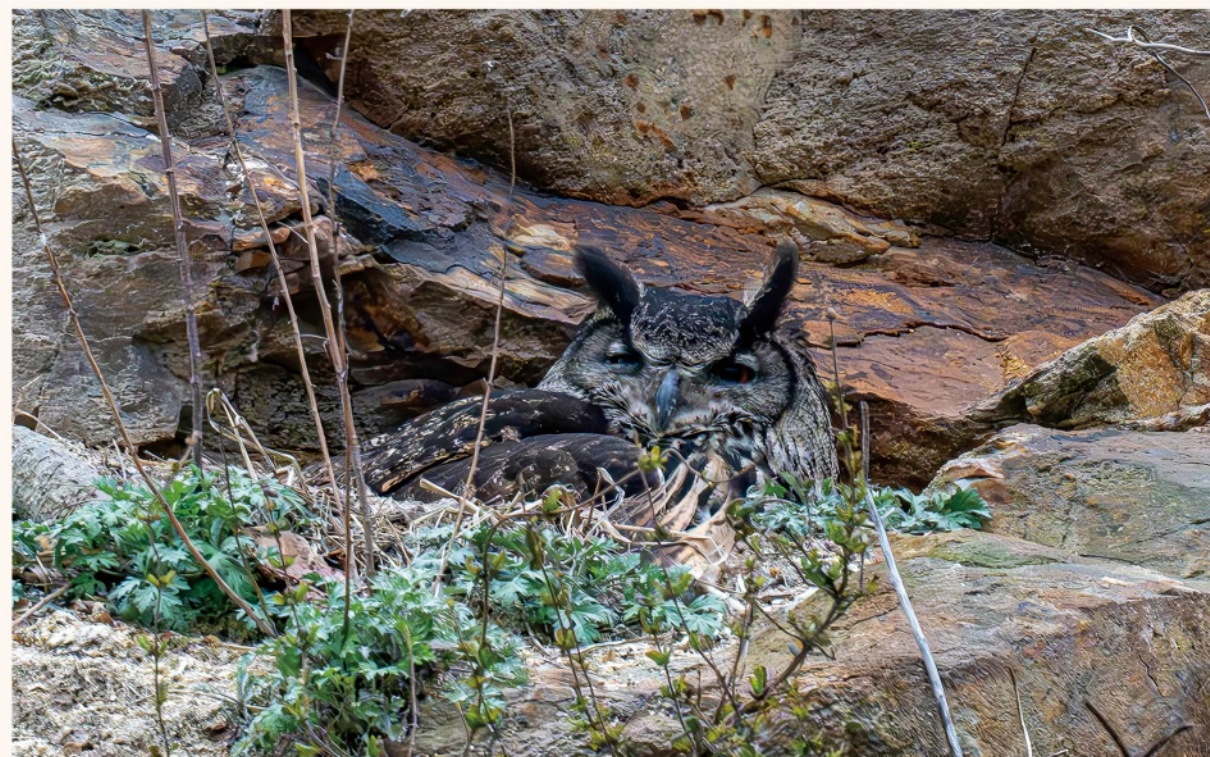
취미로 사진을 찍어온 지 45년 이상, 새 사진을 찍은 지는 10년이다. 그는 긴 시간 사진을 찍어오면서 줄곧 ‘사진은 여행’이라고 생각해왔다. “우리가 사진을 찍는 건 대개 아름다운 순간, 기억에 남거나 의미 있는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매일 아침 카메라를 메고 나와 새 사진을 찍을 때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유병희 해설사에게 새는 피사체를 넘어 매일 만나는 절친한 친구와 같다.

고창의 새를 기록하고 소개하는 것이 나의 일
유병희 자연환경해설사가 내놓은 첫 책, 《고창의 새》는 고창에 서식하는 맹금류, 산새, 물새 60종을 소개한다. 단순 도감이라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의 책에는 다른 매력이 존재한다.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이 낯선 새를 언젠가 꼭 본 것만 같다. 서식지에서의 자연스러운 생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주를 이루다보니, ‘이런 새도 있구나’ 하는 단편적 감상이 아니라, ‘이런 표정을 가진 새구나’, ‘이 새는 이런 곳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등의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로 나아간다. ‘삶’의 단계가 지식을 쌓는 수준이



아닌, 친구를 알아가듯 탐구하고 이해하는 단계인 것이다.

유병희 해설사는 고창의 새 사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출판을 통해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게 자신



포란하는 수리부엉이 ©유병희



개개비 ©유병희



동고비 ©유병희

이 할 수 있는 보람된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책 머리말에서 “희귀한 새, 멋진 새를 찍는 것보다는 생태 교육적인 사진을 찍는다”라고 썼는데, 그의 사진을 보고 있으면 유병희 해설가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음이 느껴진다.

“책이 나오고 어떤 분이 이 책을 한마디로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냐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책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단순히 작품집, 도감이 아니라 글을 읽지 않아도, 새에 대해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알 수 있는 책이 됐으면 합니다. 교직생활을 할 때도 느꼈지만, 근래에는 자료의 중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새를 마주하긴 해

도 자세한 모습을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면면을 제 사진을 통해, 책을 통해 사람들이 알아갔으면 해요. 또

기후변화로 인해 새들의 활동 시기가 달라져 있을 것을 몸소 느끼고 있어요. 저처럼 한곳에 오래 있다 보면, 새들의 이동, 발견 서식지 등이 매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으니 제 사진들이 나중에 귀중한 자료 역할을 할 거라고도 생각해요.”

모르는 것을 공부하는 즐거움, 알려주는 기쁨

유병희 해설사는 고창 운곡람사르습지 자연생태 공원에서 자연환경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다. 퇴직 후 꾸준히 이어온 일이다. 새를 비롯해 자연환경, 생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기에 주변에서도 그에게 해설사 자리가 더없이 잘 어울릴 거라고 이야기했다. 방문객들에게 운곡습지를 소개하거나 여러 자연생태계를 설명해줄 때면 늘 즐겁다. 특히 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서로 나눌 이야기가 배가 되는 시간들도 너무나 좋다. 그러다 보니 새들의 여러 모습, 표정이 담긴 사진이 설명과 함께 어우러진다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들어, 그때마다 더 많은 사진을 찍겠다는 다짐도 한다. 자연생태 공원으로 출근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의 것을 공유하면서 이 일이 주는 행복을 매번 마음속에 새긴다.



머무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힐링하는, 휴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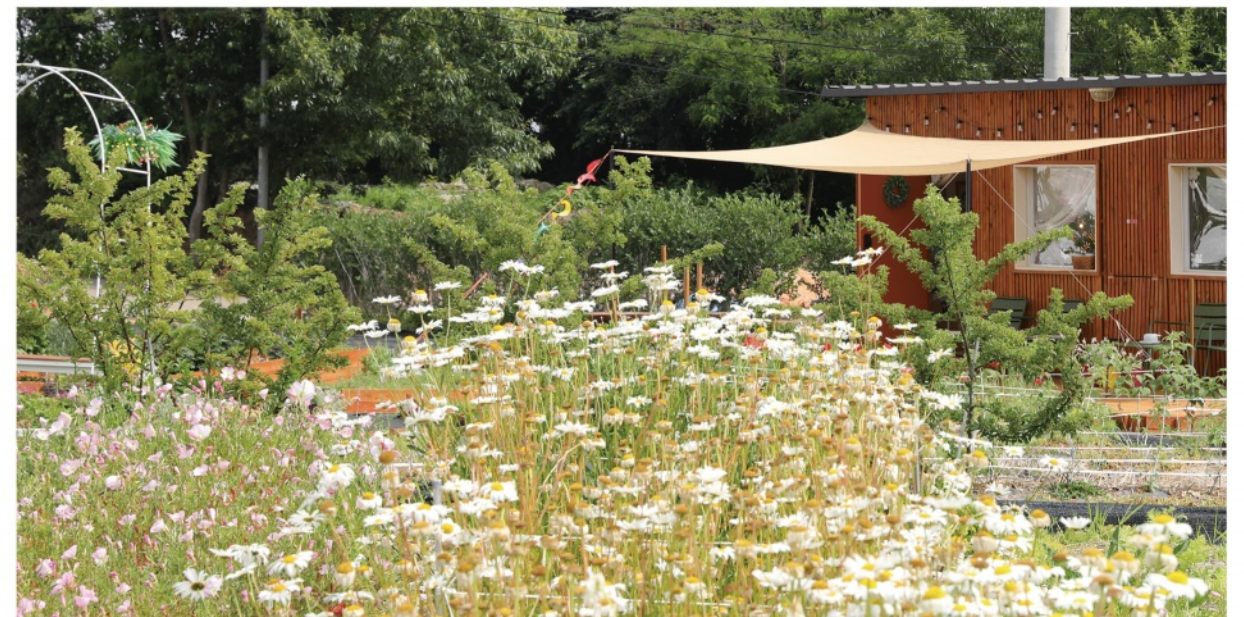
자연에 감성과 휴식을 더하다 전외숙·유종기 부부



네이버 지도를 통해 찾아본 휴하우스는 방문객들의 호평이 줄을 잇는다. 고창에서 좋은 추억을 남겼다면, 친절한 사장님 내외에게 너무 고맙다는 정성 어린 글이 한가득이다. 긴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시골에 정착하고 싶어 동림저수지 앞에 터를 잡고 하나하나 정성 들여 지은 집은 어느덧 많은 여행객에게 여행의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 공간이 됐다. 여행객과 이곳에 사는 우리도 힐링하는 행복한 공간이 되고 싶다는 유종기, 전외숙 대표의 말처럼 곳곳에 사랑스러움이 넘쳐난다.

두 부부가 제공하는 오롯한 '반짝 시골라이프'

“남편 고향이 고창이에요. 일찍부터 외지 생활을 했던 남편은 시골 생활은 죽어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긴 설득 끝에 귀촌을 결심했고 집터를 찾다가 동림저수지를 보고 아주 마음에 들어 이곳에 자리 잡게 됐고요. 처음엔 우리 둘만의 전원주택을 꿈꾸며 직접 짓고 살다가 마을활동에 대한 생각이 민박 운영으로 번졌죠. ‘하루에 한 팀만 받고 진상손님 만나면 그만두지 뭐’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민박을 생각하고 내려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의 보금자리는 2023년 5월부터 ‘휴하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640여 평 규모의 프라이빗 독채민박으로 변화했다. 400평 정도의 정원에는 100종이 넘는 꽃과 나무를 심고 두 대표가 머무는 한쪽 공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방문객이 사용하도록 공간을 꾸렸다. 커다란 창 너머로 저수지 풍경이 보이는 침실, 바비큐와 여흥을 즐길 수 있는 글램핑장, 아기자기 꾸며진 작은 카페까지 누릴 곳도 구경할 곳도 많다.

애초에 처음 집을 지을 때 죽은 공간 없이 모든 공간을 알차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던 터라, 그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담겨 만들어진 풍경이다. 공간

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숙박객은 3만 원만 내면 유종기 대표가 진행하는 목공 체험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고창을 여행하고 마을 안에 머물고, 그 여행을 추억할만한 물건을 내 손으로 만들어 가져갈 수 있으니 3박자가 고루 갖춰진 여행이다.

어떤 일이든 모두가 즐거우면, 그것이 전부

처음엔 두 사람이 하는 일을 그저 낯설게만 바라보던 마을 주민들도 휴하우스 덕에 마을 안에 여행객이 오가고 조금씩 활력이 더해지니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었다. 최근에는 숙박업에 관심을 가지며 작게 사업을 준비하는 주민도 생겨, 먼저 민박을 시작한 선배 입장에서 도움 주며 작은 민박촌을 이루고

싶은 소망도 생겼다.

“마을 분들이 숙박업을 하시면 우리 마을을 찾는 분들이 더 많아지니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인 거죠. 저희는 사업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목공방을 활성화하고, 양평에서 살 때 주도했던 벼룩시장도 열어보고 싶어요. 재능기부 형태로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다재다능한 만큼 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부부는 휴하우스 안에서 무궁무진한 미래를 꿈꾼다. 두 사람의 모든 계획과 생각에는 ‘모두가 즐거운’이 녹아있다.

음악과 춤으로, 고창의 옛것을 잇다

고창농악 이수자 이명훈·마당극 연출가 남기성 부부

이명훈 고창농악 이수자와 남기성 연출가는 각자 농악과 마당극을 무대로 활동한다. 활동 공간이 달랐던 두 사람이 만나 고창에 살게 된 건 어쩌면 고창농악이 만들어준 인연이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열정적이었던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눈에 띄었고 존경할만한 인물로 차곡차곡 마음에 쌓아두었다. 2016년에 고창농악전수관 야외공연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이전과 다름없이 늘 해오던 것들을 이뤘고 있다. 고창 안에서 함께 일할 기회가 많지 않고, 무대가 적은 것이 못내 아쉽지만 함께하고 싶은 일들을 이야기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

함께한 두 편의 작품은 많은 변화를 주었다

고창군 고수면 출신인 이명훈은 1991년 고창농악 상쇠 황규언(1920~2001) 선생에게 장구를 배우면서 고창농악에 빠져들었다. 고향으로 내려와 더욱 깊이 파고들면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농악 하는 어르신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고창농악을 직접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간의 이야기들은 《고창농악》, 《고창의 마을굿》, 《고창농악을 지켜온 사람들의 삶과 예술세계》라는

책으로 세상에 나오며 고창농악의 문굿, 풍장굿, 판굿, 도둑잡이굿, 구정놀이, 잡색놀이 등의 기초자료가 되었다. 어쩌면 사라졌을지도 모를 고창농악을 한데 모으고 전승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고창농악보존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이사로서 고창농악을 알리고 이어나가는 데 전심하고 있다.

남기성 연출가 역시 전통음악의 궤에서 활동한다. 타고난 춤꾼이라 불리는 그는 봉산탈춤, 양주별산대놀이, 고성오광대 등 탈춤과 전통춤을 익혀왔고, 탈춤, 농악 등 전통연희 전반에 관심을 쏟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창작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1986년 마당극단체 '한두레'에 입단해 배우, 안무, 극작,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마당극 <밥꽃수레>, <칼노래 춤>, <소리없는 만가>, <도리화 귀경가세>, <광대, 1894> 등을 극작 및 연출했다. 이 중 <도리화 귀경가세>와 <광대, 1894>는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사업으로, 고창에서 남기성 연출가와 이명훈 이사가 함께한 창작 작품이다.



2015년 1회차 <도리화 귀경가세> 한 장면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을 처음 준비할 때 남기성 씨가 많이 도와줬어요.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을 이끄는 것도 처음이었고, 기획서를 쓰는 것도 생소한 일이었죠. 그때 기획서 작성, PPT 발표부터 공연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 구축 전반에 많은 도움을 줬어요.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여러 전문가가 함께 해주니까 10년이 된 지금에서 보면 성과도 좋았고, 나름대로 큰 성장을 했던 계기였어요.” 이명훈

고창에서 태어나 고창농악 발전에 이바지한 이명훈 이사와 전국을 무대로 활동해온 남기성 연출가의 결합은 지역을 고스란히 이해하는 생각과 새로

운 시각이 잘 어우러져 커다란 시너지를 냈다. 그 결과 약 10년간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을 통해 창작 무대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었다.

과거를 이어오고 기록하는 일

비록 함께 협업하는 일은 적지만, 서로의 활동에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나누고 현재와 앞으로의 일에 힘을 실어준다. 지금처럼 좋아하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을 하다 보면, 또다시 함께 일할 날이 올 테다. 그러니 그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해내며 앞으로의 것을 생각한다.



“고창의 마을곳을 정리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아직 마을곳을 이어가는 곳이 많은데 그것들을 모으고 기록화하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고창의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 한 편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조금 있고요. 단순한 각색이 아니라 고창 안에서 벌어진 당대 이야기를 담아 대본을 써보고 싶어요.” _남기성

“내년이면 고창농악보존회 40년이 돼요. 그걸 기념해서 40년사를 정리할 예정이에요. 오늘날 고창농악의 토대일 수도 있는 과거 선생님들의 기념비를 세우고 40년사 정리를 통해 고창농악의 역사가 더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역 소멸을 이야기하지만, 먼 미래를 보고 걱정하기보다는 우선 현재를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과거에 선생님들을 만나 농악을 배웠고, 함께 활동하던 시기도 있었죠. 그때 옛날 곳에 대해 듣고 정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곳이 필요한 곳, 함께할 수 있는 곳에 언제든 달려가 함께하고 선생님들이 전해준 곳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고창농악 과거사 정리를 중요한 숙제로 여기고 집중하고 싶어요.” _이명훈

“놀이 오고 싶은 곳에서 살고 싶은 곳으로”

고창농촌관광연구회 백석기 회장

사람마다 원하는 여행 스타일이나 지역은 제각각이겠지만, 큰 흐름에서 보자면 여행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이전에는 건물과 사람이 밀집한 도시에서 일상적 여행을 즐기던 형태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몇 년 동안 우리 생활을 지배하더니, 사람들은 여행 안에서 뽀뽀함보

다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찾기 시작했고, 도시에서 멀어져 지역으로, 관광객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은 농촌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에 발맞춰 고창도 여러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며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린다. 그 중심에는 고창베리촌 대표이자 고창농촌관광연구회의 백석기 회장이 있다.

농촌관광, 치유의 경험

고창농촌관광연구회는 지난 2017년 1월 결성한 단체로 고창 농촌관광을 위해 연구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고창농촌관광연구회는 농업과 관광을 통한 농업의 참된 가치 발굴과 농업인의 활력 있는 삶 실현을 목표로 한다. 홈스테이(민박), 농촌체험관광, 농산물과 2차 가공상품, 향토음식, 카페 등의 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창 여행을 매력적으로 만들고자 노력 중이다.

“현재 고창농촌관광연구회에는 정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성된 24곳의 사업장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농촌관광 명소 육성을 중점으로 고창 관광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활동 등을 진행합니다. 관광객이 여행을 통해





고창의 여유로움, 넉넉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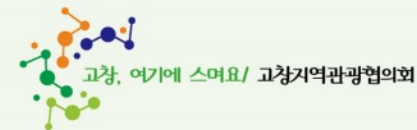
백석기 회장은 고창농촌관광연구회를 소개하며 “치유란 관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농업을 통한 체험과 치유”가 연구회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농촌관광 실태 조사 결과에도 관광객이 농촌을 찾는 주요 이유로 ‘일상탈출·휴식·치유 (37.4%)’가 1위를 차지했다. 농촌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 농촌관광은 지친 일상을 위한 환기와 백석기 회장이 말하는 치유인 셈이다.

“여행객이 고창 여행을 통해 평온하고 편안한 지역이라고 인식하고, 후에는 이곳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해요.”

지속가능한 농촌의 삶, 가족 경영을 꿈꾼다

13년 전 고창으로 귀농을 선택한 백석기 회장은 현재 가족과 함께 고창베리촌을 운영하고 있다. 오랫동안 바라던 시골살이는 “제2의 인생에 최고점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열떨결에 시작한 농사는 시간을 거둬줄수록 욕심이 생겼고, 조금씩 확장해 현재는 딸기와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양봉도 한다. 농산품을 활용한 2차 가공품인 발사믹 식초, 코디얼음료(식초와 생과를 함께 갈아 만든 음료베이스) 등을 마켓컬리, 쿠팡, 네이버쇼핑 등 다양한 판로를 통해 판매하고 체험장을 운영하며 고창베리촌과 고창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와디즈에서 발사믹 블록 펀딩을 진행하고자 계획 중에 있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가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가족과 함께 운영하지만, 후손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완전체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죠. 농업 선진국을 보면 후손들이 가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선대에서 탄탄하게 일궈놓잖아요. 저 역시 그렇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의 제가 할 수 없는 것들, 손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빈틈없는 가업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것이 좋은 관광

고창지역관광협의회 강영수 회장

지난 2020년 고창 관광 발전을 위한 모임인 고창지역관광협의회가 꾸러졌다. 다양한 기관, 관광 관계자와 전문가가 모여 고창 관광의 미래를 위해 소통하고 활동하는 조직이다. 강영수 고창지역관광협의회 회장을 만나 협의회에 대한 소개와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고창을 재해석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고창지역관광협의회의 시작은 고창문화관광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부터다. DMO는 기초지역 단위에서 관광 기획을 주도하며 역량을 갖추고 여러 협력 연계망을 활용해 지역관광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주민 주도 관광콘텐츠 발굴과 이를 통한 문화사업 연계로 지역의 관광수요 창출을 목표로 한다.

지역관광협의회 구축을 위한 학술 세미나를 거쳐 완성된 협의회는 현재 회원수 30명으로, 외식업, 숙박업, 체험 분야를 먹고, 놀고, 자고 세 분과로 나눠 구성해 운영한다. 매달 분과장 정례 모임과 분과별 소모임을 추진하고 분기별로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주로 지역관광협의회 주도의 관광 상품 개발, 관광 상품 시범 운영,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관광협의회 역할 및 기능 체계화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다. 이외에도 통합 세미나와 교육, 아카데미를 통해 협의회 의 결속력을 다지고 성장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인생샷’과 ‘향기’를 주제로 직접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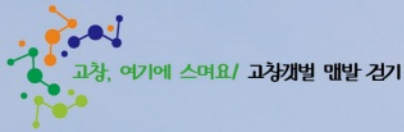
상품을 개발해 시범운영하기도 하고, 2022년에는 고창형 폴리마켓 ‘고창한장 단풍마켓’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사업활동을 이어왔다. 이에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우수 DMO조직 시상식에서 지역관광추진조직 A등급 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다.



관광을 매개로 상생하는

DMO 사업이 마무리되고 지역관광협의회는 현재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발족식 후 2년 간은 DMO 사업에 몰두해 있었던 터라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이 강영수 회장의 아쉬움이다. 고창 내 지역 축제가 있을 때면 협의회 이름으로 적극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회원 모두 각자의 본업이 있어 함께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무엇보다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다르기에 한데 어우러지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래서 올해는 내 부적으로 돌아보며, 토대를 다지고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이 목표이다. 기초가 탄탄해야 앞으로 나아갈 단단한 힘도 생기기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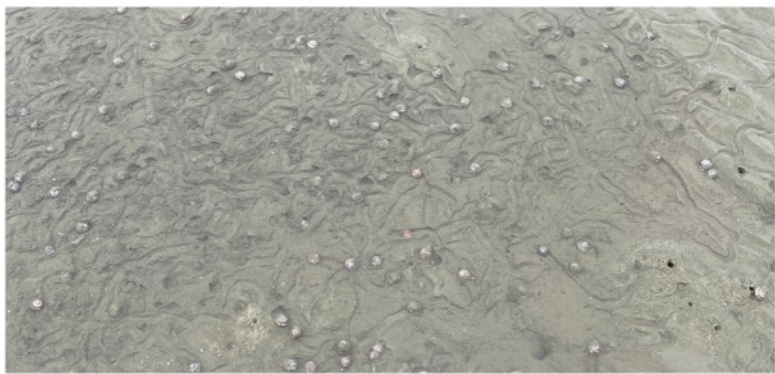
“현재는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단계예요. 함께 힘을 모으는 일도 중요하고, 아직 생소한 우리 조직을 홍보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무리해서 이끌어가면 회원들도 부담이 될 거라 생각해요. 자발적 참여가 가장 중요할 듯 싶어요. 회원들의 공동체 마인드를 구축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자리와 다른 사례를 듣고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자는 게 올해 계획입니다.”



어싱(Earthing), 땅으로부터의 치유

접지(接地)를 뜻하는 어싱(Earthing), 맨발걷기는 말 그대로 신체를 땅과 직접 연결하는 행위다.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자유 전자에 발을 디며 연결하는 것이다. 이 접촉을 통해 몸 안에 남아 있던 정전기 양이온 배출하고 대신 땅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 바쁜 일상으로 지친 심신이 맨발로 걸으며 땅을 느낄 때 비로소 치유된다.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히 딛고 천천히 나아갈 것

건강한 삶을 고민하고 트래킹이나 등산, 캠핑과 같은 아웃도어 취미가 늘어나면서 맨발걷기에 관심 갖는 이들도 크게 늘었다. 맨발걷기는 혈액순환 촉진과 혈압 안정, 혈관 건강 증진, 근육량 증가, 체온 상승,

스트레스 완화, 통증 감소, 균형감각 증가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걷기는 사유를 통한 마음 비우기에 탁월하다. 우리는 종종 많은 생각과 걱정이 열기설기 엉켜 정리되지 않을 때면 조용히 걷는 걸 선택하곤 한다. 한참을 걷다 보면 해결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새 길게 늘어진 생각의 끝 정도는 찾는 유의미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그만큼 걷기와 사유는 맞닿아 있다.

많은 철학자, 예술가들 또한 걷기를 통해 생각을 쌓아왔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걷는 사람의 발끝에서 생각이 나온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느림의 미학’이라고 했던가, 머리며 손이며 어깨며 한가득 가진 것들을 잠시 잠깐 내려놓고 천천히 사유의 늪으로 떠나보자. 한 걸음씩 천천히 공들여 걷다가 땅 위에 풀썩 주저앉아 독서나 명상에 빠져 느긋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마음 건강을 단단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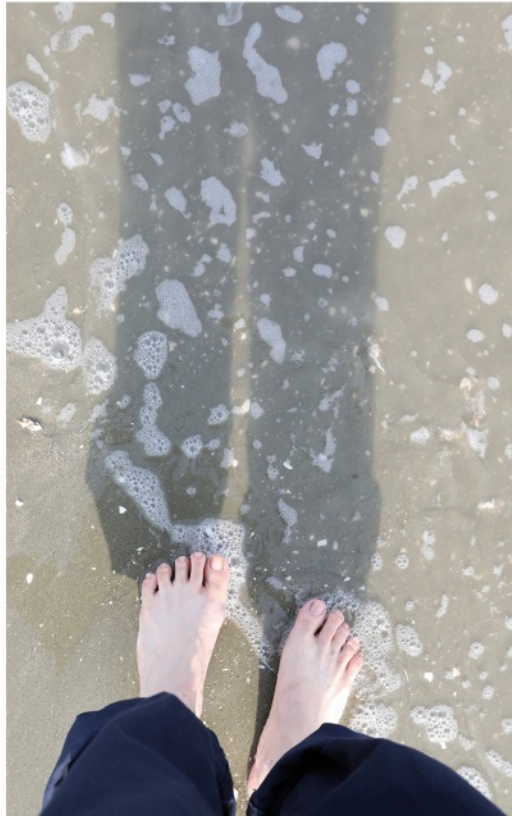
맨발걷기 전문가들은 해변 맨발걷기를 최고로 꼽으며 이를 ‘슈퍼어싱’이라 부르고, 나아가 갯벌 맨발걷기는 한 단계 더 높은 ‘울트라어싱’이라 이야기한다. 세계자연유산이자 랍사르습지인 고창갯벌, 구시포에서 동호까지 길게 이어지는 명사십리 갯벌을 걸어보자. 짚기를 머금은 바닷바람, 발가락 사이를 설새 없이 드나드는 갯벌과 부서진 파도, 온갖 갯벌 동식물들이 한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을 일깨워줄 수도 있다. 어쩌면 내딛는 발끝에서 생각이 피어오르고, 길 위에서 또 다른 삶의 방향을 찾을지도 모를 일이다.



올바른 맨발걷기로 매일매일 건강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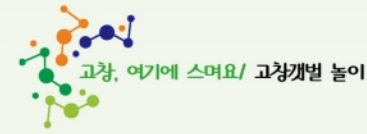
맨발걷기가 아무리 좋다고는 해도 초심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맨발이 아닌 신발을 신고 다니는 이유가 부상에 있는 것처럼, 바닥에는 종종 날카로운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무리한 걷기나 잘못된 걸음은 뼈와 근육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렇기에 맨발걷기도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좋다.

대한민국맨발걷기학교에서는 100일 동안 매일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자유롭게 실천해보라 권한다. 매일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몸과 마음의 변화를 스스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본격적인 걷기에 앞서, 본인 컨디션과 체형 등을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고 그에 알맞게 조절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30~90분 정도로 권하고 있지만, 아직 맨발걷기가 익숙하지 않거나 발바닥 혹은 발목 통증이 있는 사람은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 우선은 10분 정도만 시간을 들여 움직여보고, 점차 시간을 늘려 가보자. 중요한 것은 땅과 맞닿아 있는 접지 시간이다. 천천히 발바닥 전체를 고르게 사용해 몸으로 땅을 느끼고 땅의 기운이 내 안에 스밀 수 있도록 하자. 여유로운 걸음 안에서 치유는 자연히 솟아날 것이다.



차근차근, 올바른 맨발걷기

1. 발의 근육과 아치가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발바닥 전체를 고르게 사용하자.
2. 걸음을 내디딜 때는 발뒤꿈치에서 발바닥 전체, 발가락 순으로 닿아야 충격을 고루 분산시켜 부상을 피할 수 있다.
3. 발가락으로 밀어내면서 걷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발의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발 근육 강화에 도움을 준다.
4. 적절한 보폭과 속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불안정한 보폭은 자세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너무 빠른 속도는 발에 피로도를 쉽게 높인다.
5. 걷는 동안 몸이 굽어지지 않도록 편 상태를 유지하고 목과 어깨 긴장은 풀어주자.



낮선 바다생물 친구들을 눈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느껴요

갯벌 탐사와 갯벌 놀이 고창 갯벌레인저스

고창군 심원면 서해안바람공원에 갯벌을 배움터 삼은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하늘에는 구름이 깔리고 바닷바람이 제법 세게 불어 쌀쌀한 아침 날씨에도 아이들 얼굴은 얼굴에 잔잔한 기대감을 내비친다.

아이들은 찬바람에 맞서 둥글게 모여 제자리 뒹뒹하기를 하며 몸에 열을 올리고는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바람조차 갯벌레인저스를 막을 수 없다는 듯한 힘찬 발돋움이었다.





“우리 더우면 ‘덥다, 덥다’ 생각하지 말고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거 알죠? 그것처럼 오늘은 춥다고 생각하지 말고 ‘즐겁다, 즐겁다’ 하고 재밌게 놀아봅시다!”

마음씨 착한 갯벌 청소부, 갯지렁이야 안녕!

고창 갯벌레인저스는 고창 지역 청소년 20명으로 구성된 생태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 4월 발대식을 가진 뒤 부지런히 바닷가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방풍 해송숲, 사구, 모래톱이 하나로 이어진 고창갯벌 생태계 탐구와 계절마다 갯벌을 찾는 새를 탐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갯벌에서 펼치는 자연 놀이도 진행한다.

평소 접하지 못하는 바다생물 친구인 ‘갯지렁이’에 대해 차근 차근 알아보고, 갯벌 진흙을 활용해 나만의 갯지렁이를 만들어 본다. 갯지렁이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부분 징그럽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미리 준비한 그림 자료를 눈에 담으며 갯지렁이 종류와 모양, 갯벌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세세하게는 다리 개수, 마디 수 등 갯지렁이에 대해 알아간다. 저마다 모양이 다른 갯지렁이 그림을 보며 이름을 유추해보기도 한다. 머리 쪽이 화려한 꽃갯지렁이를 보고 한 친구가 민들레 홀씨 같다며 민들레 갯지렁이라는 새 이름을 붙여줬다.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긴 동물이며 예쁘게 생기진 않았지만, 갯벌이 숨 쉬도록 돕는 좋은 친구”라는 선생님 이야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기며 갯지렁이와 조금씩 가까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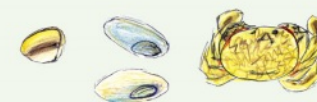
우리들의 친구 갯지렁이를 소개합니다

갯지렁이와의 첫 만남 시간을 마무리하고 아이들은 직접 퍼온 갯벌 진흙을 활용한 놀이활동에 들어갔다. 손으로 조물조물 만져보고, “느낌이 이상해!”라고 말하며 서로의 팔에 묻히는 장난을 치기도 하는 등 아이들 사이로 즐거움이 흘렀다.



놀이활동은 두 가지 순서로 진행했다. 먼저 개인 작품 하나를 만들고 이후에 두 팀으로 나눠 커다란 작품을 만드는 순서로 진행했다. 첫 시간에는 어떻게 만들지 감이 잘 오지 않는지 작품을 만드는 데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갯벌과 친해지는 일에 시간을 좀 더 쏟았다. 아이들의 창의력과 적극성은 팀전으로 한 두 번째 놀이활동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기다란 폐현수막에 신이 나서 넓고 길게 진흙을 펼치고 손도장을 찍어 다리를 표현하기도 하고, 숲에서 꾸밀만한 것들을 찾기도 했다. 자유롭게 놀며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이 파도처럼 반짝거렸다. 전혀 다른 생김새의 두 갯지렁이가 탄생하고 서로 작품을 보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에도 아이들은 어느 때보다도 수다스러웠다. “우리가 더 잘한 것 같아요!”, “아 저 벌집 우리도 찾았으면 좋았을걸”, “저 갯지렁이는 마디가 많이 그려져 있어서 나이가 많아 보여요” 등 들뜬 목소리의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

갯지렁이에 대한 인상이 처음과는 조금 달라졌느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아이들은 ‘조금은 덜 징그럽게 느껴진다’, ‘무섭지 않다’고 말했다. 완전히 친해지진 않았지만, 새로운 바다생물 친구의 생김새도 알고, 좋은 친구라는 것도 기억해두며 한 발짝 가까워진 느낌이다.





고창을 찾아요/ 책 읽는 서울광장에서 펼쳐진 고창여행도서관

북크닉, 책과 함께 떠나는 고창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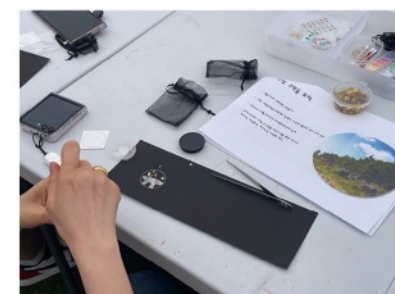
고창의 일곱 가지 보물을 찾아서

서울시는 4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목~일요일 '서울야외도서관'을 진행한다. '서울야외도서관'은 개최 장소에 따라 책 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책읽는 맑은 냇가로 불리며, 기존 도서관을 실내에서 야외로 확장한 서울 도서관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매주 다양한 국가와 국내 지자체의 색다른 여행 재미가 가득한 서울야외도서관 행사는 올해 일평균 약 6천여 명의 시민이 찾았다. 많은 내외국인이 찾아오면서 서울야외도서관은 지난해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친환경도서관상에 이어 올해 국제마케팅상을 수상했다.



고창군이 참여한 '서울야외도서관' 책 읽는 서울광장은 넓은 하늘 아래 온 가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시의 거실'로 운영되었다. 가족, 연인, 친구가 함께 앉아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가족 빈백'이 있고, 광장 중앙에는 엄마 아빠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창의 놀이터'가 조성되었다.

'서울야외도서관' 책 읽는 서울광장에서는 4월 19일 홍성군을 시작으로 서울시, 덴마크, 순천시, 네덜란드에 이어 고창군이 5월 25일 《여행도서관: 고창》으로 참여했다. 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는 유네스코 고창의 일곱 가지 보물을 테마로 한 홍보관과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 방문객이 줄을 이어 고창의 매력을 직접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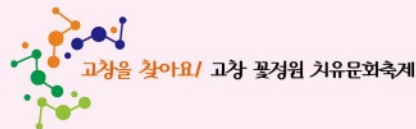
고창 홍보관에서는 <고창의 일곱 가지 보물을 찾아 떠나는 스탬프 투어>를 진행해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홍보관 앞에서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보물처럼 빛나는 그림, 야광 페이스페인팅>, <보물찾기 참여하고 찰칵! 인생네컷>, <고창의 유적! 고인돌 자개 그림톡 만들기>, <모여모여~ 재미난 어린이 모꼬지 여행북 체험>, <고인돌 퍼즐을 맞춰보자! 전라도를 지킨 모양성 입체 퍼즐 만들기>, <고창의 일곱 가지 보물을 만나는 대형 젠가게임> 등 선사시대부터 문명을 꽃피운 신비로운 땅, 고창의 역사와 문화를 흥미롭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군립도서관의 폐기 도서 팝업북 전시 역시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이와 함께 고창 여행도서관 행사에 참여한 서울 시민은 “고창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이번 여행도서관 고창 홍보관을 돌아보며 고창의 매력에 푹 빠졌다. 얼른 고창에 가서 일곱 가지 보물을 보고 싶다”



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고창 여행도서관은 이른 더위가 시작되어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야간시간으로 운영되었다. 밤까지 이어진 고창 여행도서관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모로모로에게 친근하게 다가와 안아주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책과 함께 누워서 고창으로 떠나는 여행을 통해 ‘세상은 커다란 한 권의 책’이라는 말을 떠올리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이곳, 고창에서 꽃길만 걸으세요

보고 느끼고 즐기는 다채로운 꽃의 향연 속 치유와 힐링의 시간

지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꽃정원에서 즐기는 힐링 피크닉'을 주제로 2024 꽃정원 치유문화축제가 진행되었다.

이번 축제는 고창군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고창의 치유문화 브랜드 구축을 위해 새롭게 조성된 자연치유공간인 꽃정원단지를 홍보하고 노동저수지부터 고창읍성, 금토끼야시장이 열리는 구도심까지 이어지는 치유 관광코스를

알리기 위해 더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꽃정원단지에서는 꽃과 자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꽃밭 산책길과 축제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했다. 고창읍성 잔디광장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꽃을 테마로 한 치유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금요일과 토요일은 행사가 끝나



는 오후 5시 무렵부터 고창읍성 옆 구도심 거리에서 열리는 '금토끼 야시장'까지 연계하여 하루 코스로 고창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축제기간 동안 고창읍성을 배경으로 꽃과 함께 즐기는 프리마 앙상블 클래식 공연과 지역예술인이 함께하는 공연 등을 운영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힐링 놀이터 프로그램을 매일 운영

하여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치유 문화축제를 만들어나갔다.

축제 세부 일정으로는 무대프로그램(개막식, 꽃과 함께 클래식 공연, 지역 예술인 공연, 어린이 콘서트), 체험 프로그램(말랑폭신 꽃만들기, 나만의 꽃액자 만들기, 꽃 발한컷, 내 얼굴에 핀 꽃 페이스페인팅, 함께 그리는 꽃정원), 치유프로그램(치유농업 심포지엄, 치유농업 이야기,



치유티팅발 운영), 상설프로그램(치유문화도시 홍보존, 벨리곰 포토존, 반려동물 힐링존, 힐링피크닉존)이 진행되었다.

특히 꽃을 테마로 한 '말랑폭신 꽃만들기'와 '나만의 꽃 액자 만들기'는 참여자의 상상력을 직접 작품에 표현해 보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표현력을 키우고 문화적 감성을 이끌어 내는 시간이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이들에게 동심을 심어주고,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함께 참여한 가족들에게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축제를 통해 고창의 새로운 치유관광코스를 홍보함과 동시에 축제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치유문화도시 고창을 알리고, 치유문화의 일상화와 치유 가치를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많은 방문객들의 참여와 호응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9월, 고창읍성 일원에서 열리는 제2회 고창 치유문화축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 박은총 사진 김강섭



고창 노동골 꽃정원단지 방문 꿀팁

- 주 소: 고창군 고창읍 노동리 365-1(노동저수지 앞)
- 운 영 시 간: 상시운영
- 주 차: 꽃정원 단지 내 임시 주차장 이용
- 주변관광지: 노동저수지(걸어서 3분), 고창읍성(차 타고 3분)
- 문 의: 고창군농업기술센터 꽃정원T/팀 063-560-8896



청정자연 속 여유와 휴식, 캠핑도 고창!

고창별밤 그린캠프, 200팀 700여 명 참가 '성황'

고창군과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지난 4월 전국단위 캠핑 관광객 200팀을 대상으로 추진한 '2024 고창별밤 그린캠프'가 2024 대한민국 문화 예술·관광 박람회에서 지역문화 우수사례상을 받았다.



2024 고창별밤 그린캠프는 다양한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문화·관광도시 고창에서 지역 내 숙박 문제 해결과 발길이 뜸한 공간을 활용하고자 캠핑 시장을 겨냥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한 사례다.

고창별밤 그린캠프는 청보리가 푸르게 자란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고창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에서 진행되었는데, 전국 단위 230여 대의 캠핑카(카라반), 가족, 연인 등 약 700여 명의 캠핑관광객이 방문하였다. 앞서 사전예약 30분만에 모집이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방문객들은 2박 3일간 '전통 연날리기', '가족 축구 다트', '고창별밤 그린파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고창에서 머물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어디에서 찍



더라도 사진이 예쁘게 잘 나온다”, “고창의 자연 속에서 여유를 느끼며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 등의 다양한 참여 후기가 쏟아졌다. 또한 환경을 위해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는 클린 캠핑을 시행하여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참여자들은 보리쌀, 김,

고구마말랭이 등 고창의 농특산물 웰컴 키트와 꾸러미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앞으로도 고창문화관광재단은 고창의 문화자원을 콘텐츠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발굴과 보존하는 사업을 통해 고창을 알리고 노력하고자 한다.

재단 소식

1. 소식지 구독자 이벤트 '구독하고 여름을 시원하게'

신규구독자이벤트
구독하고 여름을 시원하게!
소식지 구독 + 퀴즈 맞추고 쿠폰받자!

문의 : 070-4914-1604 | 홈페이지 : www.gctf.or.kr | 고창문화관광재단

소식지 구독과 퀴즈 참여하고 쿠폰 받자!
구독하고 여름을 시원하게!
리퀴 크리미
지역을 뜻하는 OO와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을 뜻하는 OOOOO가 합성된 형태 아슈크림 안머개? 의 신조어!

HINT 2024 <고창! 문화를 읽는 창 10호> 주제

이벤트 경품	아이스크림 쿠폰 증정(85명 추첨)
이벤트 기간	2024.07.26.(금) ~ 8.23.(금)
당첨자 발표	2024.08.30.(금) 당첨자 개별 문자 발송
이벤트 신청	온라인 신청(QR코드 or 링크)
이벤트 참여	구글폼에 퀴즈 정답 입력 후 구독 동의하기

문의 : 070-4914-1604 | 홈페이지 : www.gctf.or.kr | 고창문화관광재단

2. 고창 여행 후기를 들려주세요

★★★★★
고창 여행 후기를 들려주세요!
여행하고! 후기쓰고! 선물받고!
여행 후기를 제출하면 주점을 통해 "고창군 농특산물(5만원상당)"을 드립니다!

제출된 자료는 고창군 관광 홍보를 위해 재가공되어 활용됩니다.

문의 : 070-4914-1603 | 홈페이지 : www.gctf.or.kr | 고창문화관광재단

고창 여행의 후기를 들려주세요!
이벤트 개요

관광객의 실제 여행 후기를 홍보물로 제작하여 실질적인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	2024. 7. 12.(금) ~ 9. 22.(월) / 상시모집
여행 기간	2024. 7. 12.(금) ~ 9. 22.(월)
모집 대상	고창군 거주자가 아닌 만 19세 이상 성인(팀별 모집)
참여방법	참가 신청 후 고창 여행 중 참가자 미션 수행하고 제출서류 제출하기
제출시기	여행일로부터 9. 25.(수) 17:00까지 ※제출서류는 제공된 양식 사용
제출처	gml@gctf.or.kr
참여혜택	고창 농특산물(5만원 상당) ※혜택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선정방법	미션을 수행한 참가자 중 랜덤 선정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참가 신청서 링크

문의 : 070-4914-1603 | 홈페이지 : www.gctf.or.kr | 고창문화관광재단

3. 다채로운 고창을 만드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는 <고창! 문화를 읽는 창>에 실을 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고창 여행기, 귀촌 생활 수기, 문화 칼럼 등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내용은 다음 호에 정성껏 수록하고 소개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문의 및 접수 고창문화관광재단 관광팀 (전화 070-4914-1604 | 이메일 chang4451@gctf.or.kr)



한여름밤 트롯 콘서트

8월 13일(화) 19:30 고창문화의전당
출연: 김연자, 박구윤, 은가은
• 관람대상_ 고창군민(예매시 신분증 지참)
• 관람료_ 일반 3,000원 청소년(어린이) 1,500원
• 관람연령_ 8세 이상
• 티켓오픈_ 8월 6일(목) 09:00
• 고창문화의전당 현장예매(타지역민 예매 불가/ 현장예매 주말 제외/ 1인 4매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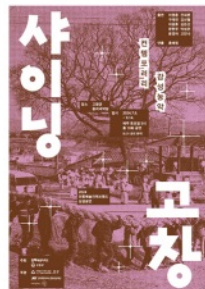
고도를 기다리며(연극)

8월 16일(금) 19:30, 8월 17일(토) 14:00
고창문화의전당
• 관람료_ 10,000원
(고창군민 일반 3,000원/ 청소년(어린이) 1,500원)
• 관람연령_ 12세 이상
• 티켓오픈_ 8월 9일(금) 09:00
고창문화의전당 홈페이지(<http://ticket.gcac.kr>)
현장 동시예매(현장예매 주말 제외)



8월 문화가 있는 날 예술무대

8월 27일(화) 19:30 고창문화의전당
출연: 이유밴드
• 관람료_ 천원의 행복(1,000원)
• 예매_ 공연 일주일 전부터 고창문화의전당 홈페이지(<http://ticket.gcac.kr>) 현장 동시예매
• 문의_ (063)560-8041 고창문화의전당



감성음악 컨템포러리, 샤이닝 고창

7월 6일~9월 14일 매주 토요일 5시(8월 31일 쉼)
고창군 동리국악당
출연: 이명훈, 구재연, 이광휴, 윤경아, 문현주
전새론, 김선월, 김은선, 박성은, 고안나
• 관람료_ 10,000원(고창군민 5,000원)
• 예매_ 네이버 온라인 티켓예매
전화예매(063-562-2044)
현장예매

고창 새 책



우리, 운곡습지에 어울려 살아요

글·그림: 강창엽 강희석 김금순 김범중 김재임 김점에 김진 김현숙 안승현 이길은 이명우 정석봉 조영옥 조태규 최선하 표판임

고창은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다. 아주아주 옛날부터 사람이 지구생태계 안에서 온갖 생명들과 조화롭게 살아왔다는 뜻이다. 보전가치가 높고, 그 가치를 거기 깃들여 사는 사람들이 잘 보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생물권보전지역 가운데 '운곡습지'는 830여 종의 다양한 동물과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로 인정받아 람사르습지에 등재되었다. 그 습지를 오래오래 지켜보아 온 마을 사람들, 자연환경해설사, 지질공원해설사, 활동가들이 모여 습지의 역사, 습지가 품은 생명, 습지 한켠에 묵묵히 살아온 고인들 등을 생생한 이야기와 그림으로 들려준다. 이 책은 고창문화관광재단 뮤지엄 고유 자원 특색활동 글·그림 콘텐츠를 바탕으로 출판되었다.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천천히 자연 친화적인 발자국을 내딛다 보면, 어느새 영원히 살아 숨 쉬는 생명의 시원, 습지에 다다른다.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며 서로를 복돋는 친구가 되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꿈꾸어 본다. 기후 위기,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태초의 자연으로 돌아가야 함을 여실히 느끼는 요즘, 우리는 운곡습지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고창의 새 새 보는 즐거움, 새 보는 놀라움

글·사진: 유병희

고창에서 자연환경해설사, 생태사진가로 활동하고 있는 유병희의 시선에서 바라본 새. 저자는 교직에서 은퇴 후 10여 년간 고창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새를 탐조하고 촬영하고 있다. 고창은 서해 갯벌, 운곡 람사르 습지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생태적 조건 덕분에 고창은 텃새들의 터전이자 나그네새들의 쉼터가 된다. 길 잃은 새가 떠돌다가 자리를 잡고 텃새가 되기도 한다. 목차는 맹금류, 물새, 산새로 나누어져 있다. 그 외에도 여름철새, 겨울철새가 계절의 새로운 빛깔과 함께 살아간다. 그리하여 총 150종의 새를 담았다. 이 책을 통해 고창을 떠나는 새들, 과거에 떠났다가 돌아온 새들, 긴 여정의 경유지로 머물다 가는 새 등 다양한 모습의 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제1회 고창 모양성제

2024. 10.9. 수 - 10.13. 일
고창읍성 일원





고창의 보물을 찾아서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GOCHANG CULTURE & TOURISM FOUNDATION



gctf.or.kr



blog.naver.com/gctf1110



instagram.com/gochang_gctf



ISSN 2733-9971